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Psychological Process Home Environment and Family Value Orientations of Students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 姜 淑 鏡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高 貞 子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Dong A Univ.

Sook Gyong Kang

Dept. of Home Management Dong A Univ.

Professor : Jung Ja Ko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process home environment that students perceived and their family value orientat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48 students randomly selected from 6 Universities in Pusan area.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by following methods : T-test, Paired T-test, One way, Scheffe-test, M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erived from the data analysis in this study :

First, The psychological process home environment that students perceived is achieved, opened, attracted, and autonomous. And their family value orientations are somewhat moderns.

*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임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ligions, sibling order, SES, mother's jobs in the family value orientation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sychological process home environment that students perceived and their family value orientations.

I. 서론

가족은 혈연과 입양, 그리고 결혼에 기반한 공동체적 상호 유대감과 정서적 융합의 성격을 띠며, 개인의 성격, 가치관이나 의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핵적인 인간집단이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체계 및 사회구조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는 가족의 구조적 의식적인 면에 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가족의 기능은 축소되고, 권위구조가 평등화 되었으며, 가족주기에 있어서도 역할단계가 연장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의식적인 변화로 인하여 가족가치체계가 다양화되고 이질화되었다. 이와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표면적으로는 근대화 된 것 같은 현대의 생활이 실제 자신들의 가정생활에서는 전통적 가족제도를 긍정하는 가치의식의 불균형 상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새로운 가치의식은 확립되지 못한 채 전통적인 가치의식이 붕괴되어지므로 행동과 정신상태는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이효재, 1976).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가치관과 서구로부터 도입된 긍정적인 가족가치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좀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가족가치관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가족가치관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많은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환경의 지위환경, 구조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정우, 1974; 옥선화, 1975; 고정자, 1979; 김명

자, 1979; 이천세, 1980; 김정식, 1981; 최점화, 1986; 김영자, 1986; 김일명, 1988; 길성애, 1990; 홍금자, 1990). 그러나 가족의 구조적 환경보다는 가정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가치관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가족가치관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자율-타율, 친애-거부)과 가족가치관(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인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중에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인간형성의 과정은 바로 환경이 작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을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에서 가정환경이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보다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볼 때, 가정환경과의 접촉이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할 뿐 아니라, 행동과 성격의 방향을 결정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생의 초기를 가정에서 대부분 보내면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김기향, 1989).

가정환경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가정환경의 구성 영역중 지위환경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Bloom이 과정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과정변인 혹은 작용변인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황응연, 1973). Wolf(1964)는 가정환경을 지위변인과 과정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과정변인으로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관계를 포함시켰다. Dave(1963)는 가정환경을 과정적 변인과 상태특성적 변인으로 분류했으며, 황정규(1973)는 가정환경을 물적 환경과 인적 환경으로 나누어, 인적 환경의 변인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분위기 등을 예시하였다. 송인섭(1989)은 가정환경의 구조를 가족구조, 사회적 지위, 가족의 심리과정 특성 등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원식(1977)은 가정환경을 두변인으로 명확하게 양분할 수 없다 하여 이를 지위환경, 구조환경, 과정환경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과정환경으로는 수용-거부, 자율-타율,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과정환경을 개인과 그 개인에 근접해 있는 외적 조건이나 자극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표현하는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크게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심리적 환경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는 과정변인, 인적 환경, 과정환경 그리고 가족의 심리적 과정특성이 있다.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동

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가치관은 가족형태, 크기, 가족내 인간관계 등을 통한 가족성원간의 제반 행위의 방향이나 양식 또는 태도를 형성하므로 가족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사회와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치관이 혼란한 오늘날에는 한번 선정된 가치관을 계속 강조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재평가, 재선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는 가족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가치관은 사회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가치관을 모두 의미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에 대해 구체적인 변화를 지적하면서 그 전통성과 근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조상제사와 가계계승자의 획득수단으로서 가계의 번영과 영속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혼당사자의 개인적 자질보다는 가문과 같은 가족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시 되었다. 배우자 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동본불혼과 계급적 내혼제이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중매결혼을 선호해 왔다. 아울러 결혼당사자는 결혼전 순결이나 정조의 중요성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관은 196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의 촉진과 함께 개인주의에 입각한 가치관이 수립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화였고 결혼형태 또한 연애결혼이 급증하게 되었다. 배우자 선택방법과 조건도 변화하여 남녀 당사자의 평등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며 또한 결혼외의 성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의 비난도 약화되었다.

전통적 부부관은 부창부수, 여필종부 등으로 남편에 대한 예속이었고 처는 한 가문중의 유일한 타성을 소유한 외인의 위치에서 가문의 영속과 번영을 위해 살았으며, 부부의 애정이나 감정적 표현등은 거의 무시되었다. 이처럼 가정내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가계계승을 위해 남자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부부관계는 부자관계에 대하여 이차

적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이태현, 1976).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부부관은 사회의 변동, 도시화, 여성의 취업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내의 부부간 역할분화의 경계가 점차 약화되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인의 역할은 남편의 동반자로서 가정생활의 책임과 결정권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자관계 특히 부자관계이다. 이러한 부자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규범이 바로 효도이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할 절대적인 도덕률로서 봉양, 사친의 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황경, 1962). 효의 본질은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어져 이른바 제사의식을 치루게 되는데, 한국의 유교적인 제례는 한 마디로 一家一族의 私事이며 조상숭배 祭義이지만 특히 조선시대에는 치국으로 종교의 세계까지 형성한 것이었으며 제사는 4대 봉제가 기본이었다. 근대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고 자식을 복종시키기 보다는 이해를 시켜야 하고 자녀의 교육상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를 조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근래에 와서 장남이외에 차남과의 동거 또는 딸에 의한 동거율이 상당수이고(김해운, 1977, 서병숙, 1988), 동거하지 않는 고령자 독신세대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동거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김태현, 1981) 전통적인 직계가족체계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장남이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사에 대한 가치관도 2대까지 지내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으며 엄격한 제사의 형식성은 서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사회에 침투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3.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의 관계

Bell & Voge(1960)는 모든 인간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치유형을 발전시키고 이러

한 가치유형은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 사회적 환경 및 가정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환경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정내의 개인은 이러한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다. Byrne(1965)는 가족구조와 과정이 부모-자녀의 가치형성에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고, Rotter(1966)는 가족과정변인이 자녀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inkinney(1973)도 역시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행동주체인 당사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각의 측면이 바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인데 과정환경은 개인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지고 있다. Coleman & Ganong(1984)는 가족의 구조나 친밀성과 같은 가족결합력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Whitbeck & Gecas(1988)는 부모-자녀간 가치전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치의 유형, 지각, 자녀의 연령,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내에서 개인은 가족원들과 서로 조정하고 규제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초적인 생활습성과 성격이 형성되며 가치관의 정립등 정의적 측면도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가치관은 가족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된다는 점에서 가정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가족가치관 척도, 그리고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척도로서 총 9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가족가치관 척도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 및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결혼관(7문항), 부부관(10문항), 부모자녀관(10문항)을 하위영역으로 포함시켰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문항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결혼관에서 2문항(결혼식 절차의 필요성, 혼전순결)이 변별도가 낮아 제외시키고 27문항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전체 가족가치관척도는 Cronbach $\alpha = .82$ 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결혼관은 .54, 부부관은 .76, 부모-자녀관은 .72로 나타났다.

(2)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척도

가정환경 검사지에서(정원식,1970)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은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의 4개의 하위변인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변인은 14개씩의 문항으로 총 56문항으로 되어있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Spearman-Brown공식을 이용한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55로 나타났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은 원점수를 본 연구자가 구명채점판을 이용하여 1에서 9까지의 스텐나인점수로 환산하였다. 5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지향적, 타율지향적, 폐쇄지향적, 거부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2.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여 1992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1000부를 배부하여 964부를 회수하였으나,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자료는 제외하고 84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통계 Package에 의해 행해졌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반복 T검증, MANOVA, 일원변량분석, Scheffé test,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내 6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 848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학 년	1학년	195(23.0)	형제 순위	장남(녀)	436(51.4)
	2학년	249(29.4)		차남(녀)	213(25.1)
	3학년	247(29.1)		차남(녀)이하	166(19.6)
	4학년	157(18.5)		외동	33(3.9)
성 별	남	379(44.7)	가족 형태	핵가족	706(83.3)
	녀	469(55.3)		확대가족	142(16.7)
종 교	불 교	208(24.5)	교육 정도	무학	22(2.6)
	기독교	112(13.2)		국족	131(15.4)
	천주교	77(9.1)		중졸	203(23.9)
	무 교	437(51.5)		고졸	411(48.5)
	기 타	14(1.7)		대졸이상	81(9.6)
母的 직업	유 무	255(30.1)	SES	상류층	73(8.6)
		593(69.9)		중류층	627(73.9)
				하류층	148(17.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분류기준은 부의 교육정도, 부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의 각 변인에 각각 1점에서 6점까지 부여하여 가정의 월수입과 부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승인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하였다. 그래서 얻어진 점수를 하류층(8점이 하), 중류층(9점- 14점), 상류층(15점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IV. 결 과 및 논 의

1.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의 경향

(1)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중간점(5점)과 평균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변인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MO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의 경향

과 정 변 인	M	SD	t ^a
성취-비성취	4.13	1.96	12.97***
개방-폐쇄	6.72	1.57	32.05***
친애-거부	5.09	1.92	1.29
자율-타율	5.94	1.85	14.74***

a : 중간점(5점)과 평균간의 차의 유의성을 나타낸 것.

*** : P <.001

<표 3> 과정 변인간의 차이검증

변 량 원	SS	DF	MS	F
과정변인간	3172.61	3	1057.54	389.03***
오 차	6907.39	2541	2.72	

*** : P <.001

<표 2>에서 중간점(5점)과 평균간의 차의 유의성을 보면, 반복 T검증 결과 성취-비성취변인, 개방-폐쇄변인, 자율-타율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비성취지향적, 개방지향적, 자율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비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으로 나타났다는 황 응연(197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자녀들이 오늘날 가정내에서 부모간의 상호관계가 평등화되고 부모-자녀간에도 신뢰성있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3>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간의 차의 유의성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가정은 성취지향적, 개방지향적, 친애지향적, 자율지향적 과정환경중 개방지향적인 경향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자율지향적이며, 성취지향적 환경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중 '개방 - 폐쇄'변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지각되는 심리적인 자극이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한다는 지각이 다른 심리적 과정환경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 가족가치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중간점(2.5)과 평균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하위 영역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M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가족가치관의 경향

영 역	M	SD	t
결 혼 관	2.88	.33	33.37***
부 부 관	2.85	.39	26.40***
부모-자녀관	2.68	.34	15.93***
전체 가족가치관	2.81	.27	33.07***

a : 중간점(2.5)과 평균간의 차의 유의성을 나타낸 것.

*** : P <.001

<표 4>에서 중간점(2.5점)과 평균간의 차의 유의성은 반복 T검증 결과 전체 가족가치관과 하위 영역별로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전체 가족가치

〈표 5〉 하위 영역간의 차이검증

변 량 원	SS	DF	MS	F
가족가치관	19.15	2	9.57	121.64***
오 차	133.33	1694	.80	

*** : P < .001

관과 하위 영역별로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 모두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가족가치관의 하위 영역간의 차의 유의성을 보면, MANOVA결과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가족가치관은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중 결혼관이 근대지향적 경향이 가장 높고 다음이 부부관이고, 부모-자녀관이 가장 낮은 근대지향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가족가치관의 근대성이 부모-자녀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친자관계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가족내에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test를 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test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성별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부부관, 부모-자녀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결혼관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부부관, 부모-자녀관에서 더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동거의식과 부양의식을 나타낸다는 서 병숙(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나 여자가 남자보다 전통적 부양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석 화심(1981)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부관에서 남녀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남성은 가계를 계승해야 하는 가부장적 관념을 고수하는 반면에 여성은 가정내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장하

는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종교별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관, 부부관의 경우 1%수준에서, 결혼관과 부모-자녀관의 경우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test 결과, 가족가치관,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에서 타집단이 불교를 믿는 대학생집단 보다 더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교를 믿을 수록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김 일명(1988)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효도관에서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김 명자(198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종교가 인간의 규범의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종교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에서도 종교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 형태별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족 형태별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족가치관은 가족 형태에 따라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김 영자(1986), 박 진숙(1984), 김명나(1989)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형제 순위별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과 하위 영역별로 부부관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test 결과, 차남(녀)이하인 경우가 부부관에서 가장 근대적이고, 외동인 경우가 가장 덜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부관에서 형제 순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외동인 경우 부모의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로 보다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부부관의 근대성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과 하위 영역별로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test 결과, 결혼관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류층인 대학생집단보다 중·하류층인 대학생집단에서 더 근대적으로 나타났고, 부부관은 상·중류층인 대학생집단이 하류층인 대학생집단 보다 더 근대적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관은 중류층인 대학생집단이 하류층인 대학생집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차이

변인	가족가치관			부 부 관			부모-자녀관			전체 가치관		
	M	SD	Scheffe	M	SD	Scheffe	M	SD	Scheffe	M	SD	Scheffe
성 남	2.88	.36		2.58	.33		2.53	.34		2.66	.27	
별 녀	2.88	.31		3.07	.29		2.81	.28		2.92	.21	
T 값		.05					13.02***			15.31***		
종 불 교	2.80	.32	A	2.79	.39	A	2.58	.32	A	2.72	.26	A
기독교	2.96	.34	B	2.85	.40		2.77	.34	B	2.86	.29	B
천주교	2.94	.37	B	2.96	.39	B	2.76	.42	B	2.89	.31	B
교 무 교	2.89	.31	B	2.87	.39		2.70	.31	B	2.82	.25	B
기 타	2.76	.45		2.70	.33		2.54	.36		2.67	.26	
F 값		6.56***			3.92**		9.08***			9.87***		
가족 핵가족	2.88	.33		2.87	.38		2.69	.33		2.81	.26	
형태 확대가족	2.87	.34		2.80	.42		2.67	.37		2.78	.30	
T 값		.17			1.81		.62			1.18		
형 장남(녀)	2.87	.34		2.86	.40		2.67	.35		2.80	.28	
제 차남(녀)	2.88	.33		2.79	.39	A	2.69	.33		2.79	.26	
순 차남(녀)이하	2.90	.32		2.93	.35	B	2.73	.30		2.85	.24	
위 외 동	2.89	.31		2.76	.37		2.63	.34		2.76	.24	
F 값		.59			4.77**		1.41			2.48*		
S 상	2.74	.33	A	2.92	.40	B	2.71	.38		2.80	.26	
E 중	2.89	.32	B	2.88	.39	B	2.70	.33	B	2.82	.27	B
S 하	2.91	.36	B	2.71	.37	A	2.61	.34	A	2.75	.28	A
F 값		7.96***			12.40***		4.23*			5.96**		
母的 무학	2.96	.40		2.69	.44		2.66	.43		2.77	.35	
교육 국졸	2.95	.38		2.72	.37	A	2.63	.32		2.77	.28	
수준 중졸	2.92	.30	A	2.66	.36	B	2.68	.29		2.82	.24	
고졸	2.86	.31	A	2.91	.39	B	2.71	.35		2.83	.27	
대졸이상	2.71	.34	B	2.84	.44		2.66	.38		2.74	.30	
F 값		8.52***			7.29***		1.70			2.98*		
母的 직업 有	2.88	.33		2.86	.39		2.69	.34		2.81	.27	
직업 직업 無	2.88	.34		2.85	.39		2.68	.34		2.80	.28	
T 값		.03			.34		.32			.28		

* : P < .05 ** : P < .01 *** : P < .001

A, B : 같은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P <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단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위와같은 결과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안 희삼(198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상류층의 가정일수록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이

개방적이고 친애적, 성취적이기 때문에 전통적 가족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가족가치관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가족원 역할에도 변화가 있어 남녀역할의 동질화, 우애적이고 협동적인 역할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母的 교육정도별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과 하위 영역별로 결혼관, 부부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부모-자녀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cheffé-test 결과, 결혼관은 국졸과 중졸인 어머니의 대학생자녀가 대졸인 어머니의 대학생자녀 보다 더 근대적이며, 부부관은 중졸과 고졸인 어머니의 대학생자녀가 국졸인 어머니의 대학생자녀 보다 더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관, 부부역할에 관한 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김 영자(198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母的 학력별로 고졸집단 보다는 국졸이하와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대학생의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의식과 결혼에 대한 가치의식이 유의차를 나타낸다는 황 인실(1988)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母的 직업有無별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직업은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자녀 자신의 태도, 직업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만족도와 성취도, 어머니가 직업인, 어머니, 아내의 세 역할을 성공적으로 조화시키는 능력에 의해서도 그 자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성별, 종교, 형제 순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3.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의 관계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가족가치관은 친애-거부변인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에서 결혼관은 개방-폐쇄변인에서, 부부관은 친애-거부변인에서 정

<표 7>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의 관계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	전체 가족가치관
성취-비성취	-.0552	.0503	-.1131***	-.0452
개방-폐쇄	.0699*	.0025	.0448	.0484
친애-거부	.0096	.0776*	.0657	.0689*
자율-타율	.0218	.0175	.0396	.0339

* : P < .05 ** : P < .01 *** : P < .001

적 상관이 있고, 부모-자녀관은 성취-비성취변인에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 보다 효도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는 석 화심(1981)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부부역할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민주적 집단이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며 권위적인 집단이 전통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김 영자(1986)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황 인실(1988)의 연구에서는 가정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관, 효도관, 결혼관, 전체적 가치의식과 낮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 결과를 어느정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 영애(1984)의 연구에서는 정상 청소년 집단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개방적 일수록 효도지향적으로 나타났고, 혼인관은 성취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비행 청소년 집단은 개방·자율적일수록 연애 위주의 혼인관을 보였고, 친애적일수록 효도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결혼관의 경우 중매혼에서 연애혼으로의 변화는 바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을 개방적으로 지각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부부관에서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친애적 일수록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오히려 비성취적인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부모-자녀관에서는 근대성을 더욱 야기하게 되었다. 이는 가족가치관이 가정내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으로 내면화 되

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끌어 가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중요한 작용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바람직한 가족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학생을 이해하는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은 대체로 개방적, 자율적, 비성취적으로 지각하고, 가족 가치관은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 모두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성별, 종교, 형제순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과 차남(여)이하의 경우와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 경우 근대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셋째, 가족가치관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 중 친애-거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결혼관은 개방-폐쇄와, 부부관은 친애-거부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모-자녀관은 성취-비성취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앞으로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같이 표집하여 부모와 자녀사이에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세대간의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상의 발달 정도에 따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어느 발달단계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이 가장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가치관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나, 앞으로는 좀더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환경, 학교환경,

대중매체의 영향, 동료집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고 정자(1979). 여대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17(2), 57-79.
- 2) 고 황경(1963).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3) 길 성애(1990).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 부산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 경신(1989).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가치전달 연구 - 교육과 직업에 관한 가치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김 기행(1989).가정환경 자기노출 자아개념간의 관계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 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 명자(1980).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의 변용에 대한 연구 -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 관동대학 논문집 8, 453-469.
- 8) 김 영자(1986).여고생 가족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 일명(1988).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 정식(1981).한국 농민의 가족가치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 1959년과 1981년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김 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김 해운(1977). 현대사회변화와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적 고찰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박 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129-148.
- 14) 서 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

- 구, 한국노년학회 6,101-119.
- 15) 서 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석 화심(1981).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 대구 직할시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송 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원.
 - 18) 안 희삼(1986). 부모의 사회계층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옥 선화(1975).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4),161-170.
 - 20) 이 정우(1974). 전문직 여성의 가족관계관 - 서울시내 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를 중심으로 -,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13. (1979).
 - 21) 이 천세(1980). 가족관계에서의 가치관, 안동대학 논문집 12.
 - 22) 이 태현(1968). 한국 기혼여성의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6, 84-96.
 - 23) 이 효재(1976).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 24) 정 원석(1976). 교육환경론, 서울 : 교육출판사.
 - 25) 최 점화(1986). 청소년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황 응연(1975).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7) 황 인실(1988).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황 정규(1973). 학습극대화를 위한 교육평가, 서울 : 재동 문화사.
 - 29) 홍 금자(1990). 여고생들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 광주시와 함남시를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Bloom, B.S.(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 John wiley & sons, 219-220.
 - 31) Byrne, D.(1974). An Introduction to Personality :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 2nd., New York : Prentice - Hill.
 - 32) Colemaan, M. & Lawrence H. Ganong.(1984).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Family Attitudes and Expectations, Family relations 33, 425-432.
 - 33) Dave, R.H.(1963).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education achievement,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abstract, Univ. of Chicago.
 - 34) Steelman, L.C. & B. Powell(1985). The Social and Academic Consequences of Birth Order : Real, Artfactual, or Ba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17-124
 - 45) Wolf, R.M.(1964).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home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 to intellig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